

# “성인도 과거가 있고 죄인도 미래는 있다”

김남길 '열혈사제' 종영 인터뷰

주제 무거운데 코미디 연기  
개연성에 대한 고민 많아  
시즌2 제작? 시즌1 배우들  
하나라도 빠지면 안 합니다



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막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정의와 관련된 폭력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죠. 열혈사제이고 싶었다는 신부님도 계셨어요.”

그는 인터뷰 내내 배우들과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즌2는 시즌1에 출연한 배우들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열혈사제” 배우들은 제 필모그래피 안에서는 최고의 배우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두 번 다시 이런 배우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열혈사제’ 시즌2가 확정돼서 간다면 시즌1 배우들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할 생각입니다. 제작진은 아직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저희 배우들끼리는 이렇게 합의의 뜻을 봤어요(웃음).”

(scene)을 짰었다.

“대영이 해일에게 ‘왜 이렇게 경선(이하니)에게 잘 해주냐, 기회를 많이 주냐’라고 묻자 해일이 하는 대사가 좋았어요. ‘성인에게도 과거는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는 있다.’ 이 대사야말로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 그때야 들었어. 그전까진 ‘이 드라마는 패러디의 향연인가, 이 신부님의 죽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했는데(웃음), 이 방향이구나 했죠.”

그는 ‘열혈사제’ 김해일이 배우 김남길의 인생 캐릭터라는 세간의 평가엔 “아직 보여드릴 게 더 많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말했던 다른 캐릭터보다 해일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암체 운전이라거나, 지하철 내린 다음에 타야 하는데 문 열리지마자 뛰어들어 간다거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때 서로에 대해 배려나 이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는데, 그런 게 없을 때 ‘발끈’하는 것 정도가 해일과 닮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착한 건 아니에요(웃음). 자연인 김남길은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요.”

주먹을 휘두르는 사제 캐릭터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데 대해 김남길은 “해일의 공격적 성향, 육하는 성격에 대한 표현이 걱정됐다”며 “소속도에 오래 계신 신부님께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 여쭙봤다”고 입을 열었다.

“예전엔 신부님들이 인권운동에 앞장서서 싸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

최근 종영한 SBS TV ‘열혈사제’는 최종 시청률 22%로 높은 화제성을 누리며 막을 내렸다. 톱스타가 줄줄이 나오는 드라마도 시청률 10%도 넘기 힘든 요즘, SBS가 올해 들어 새롭게 편성한 금토 드라마 첫 주자로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었다는 평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배우 김남길(38)은 국정원 특수요원 출신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독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가톨릭 사제 김해일 역을 맡아 코믹 연기와 액션 장르 연기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극을 이끌어간 일등공신이었다.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난 그는 유쾌하지만 했던 드라마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진지한 말투로 “코믹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코미디라면 모를까, 김해일 입장에선 이영준 신부님(정동환 분)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있는데 코미디를 극에 집어넣어 관통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 죽었는데 주인공인 제가 이렇게 웃기면서 코미디를 지향하는 게 개연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배우와 작가 사이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죽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식음을 전폐하고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밖에도 극 중 비냉철을 노골적으로 풍자한 ‘라이징문’ 설정이나 드라마의 사회 고발적 성격에 대해서도 박제법 작가와 생각을 달리했지만, 김남길은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제작부-연출부-배우들이 지향하게 드라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의견 차이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는 의외로 액션이 들어간 장면보다 구대영(김성균)과 차 안에서 평범하게 대화 나누는 신

## ‘女人, 독립투사 되다’ 임정 100년 특집 임시정부의 안주인 ‘수당 정정화’

KBS 1TV 오늘 밤 방송

KBS 1TV는 30일 밤 11시 40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수당 정정화’를 방송한다고 29일 예고했다.

임시정부 27년 역사에는 전면에 나서 활약한 남성들의 서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임정 안살림을 책임지고 때로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 여성들의 서사가 함께 자리한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평가된 임시정부 성과와 의미를 여성의 시각으로, 특히 정정화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해석해본다.

수당 정정화는 동생 김가진의 며느리로 상해로 망명한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임시정부 일원이 되었고 해방을 맞아 한국할 때까지 임시정부와 함께한 여성 독립운동가다.

그는 임시정부 안주인으로서 요인들을 뒷바라지하고 독립자금을 위해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잠입하는 등 독립투사로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다. 또한 ‘장강일기’라는 회고록을 통해 독립운동의 생생한 생활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제작진은 “이름도 명에도 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여했던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연합뉴스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OST 첫 주자 육중완밴드

육중완밴드가 MBC TV 월화극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에 참여한다.

MBC는 육중완밴드가 부른 첫 번째 삽입곡 ‘런’(Run)이 30일 정오에 발매된다고 29일 예고했다.

이 곡은 힘들고 부당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참고 일해온 이 세상 모든 이를 위로하는 곡으로, 신나고 경쾌한 스타 펑크 사운드가 돋보인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왕년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유도 폭력교사였지만, 복지부동을 신념으로 하는 공무원이 된 조진



MBC TV 월화극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포스터와 육중완

갑(김동욱 분)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발령 난 뒤 악덕 사업주 응징에 나서고 있는 과정을 그린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전국이장회의(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회사 가기 싫어 2019(재)	00 12 MBC 뉴스 25 다크 나쁜...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뽀뽀뽀 모모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모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	0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55 영재발굴단(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닥터 365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순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55 SBS 8 뉴스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국민 여러분(재)	55 광주MBC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지질공원 지오투어리즘 스페셜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해치
11	35 UHD 숨터 40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집 여인, 독립투사 되다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작 다큐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가 폴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6:00 한국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00 미니특공대 X
07:00 너티니츠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EBS 뉴스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황태해장국과 고추장 갈치구이〉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띠띠뽀 띠띠뽀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투의 어드벤처	〈노래가 흐르는 남미 기행 2부 포도 향기 바람에 날리고〉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뽀이	15:15 탐영 구조대	〈봄, 청춘을 만나다 2부 꽃 찾으러 왔단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몬카트	21:50 EBS 다크프라이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15 짹과 팡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모두의 모바일 MOMO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명 유치원1~2	
〈팽이버섯 죽순밥과 초간단 달걀탕〉	17:15 마사와 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b>子</b> 36년생 근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길성을 만난다. 48년생 전례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다. 60년생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 72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84년생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48, 53</p>	<p><b>午</b> 42년생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54년생 지난날에 비추어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66년생 진행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78년생 계획에 부분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90년생 관여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8, 87</p>
<p><b>丑</b> 37년생 열정적으로 노력 한다면 불리한 현태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49년생 지속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다. 61년생 실행을 보류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옳다. 73년생 가볍게 통과 되겠다. 85년생 쫓대를 가진 일관된 연행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33, 06</p>	<p><b>未</b> 43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 아니라. 55년생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자연스러움이 가장 무난하다. 67년생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79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91년생 체계적인 정리가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행운의 숫자 : 52, 91</p>
<p><b>寅</b> 38년생 관점에 따라서 판이할 것이니 폭 넓게 대응하라. 50년생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일이 보인다. 62년생 본래의 의지대로만 실행하면 무난하다. 74년생 걸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86년생 가까운 이가 제일 견고한 제방이 된다. 행운의 숫자 : 35, 18</p>	<p><b>申</b> 44년생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리라. 56년생 불편하다면 청산해야 마땅하다. 68년생 경제적인 면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80년생 사심이 개인되어 있지 않은 사고로 판단해야 한다. 92년생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14, 35</p>
<p><b>卯</b> 39년생 편히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51년생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의탁하는 성향이 있다. 63년생 마음을 비웠을 때 성취도가 높아지는 법이다. 75년생 부드러운 운세다. 87년생 지금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깔끔하게 보완하라. 행운의 숫자 : 90, 61</p>	<p><b>酉</b> 45년생 시시한 것을 가까이 하면 불리해진다. 57년생 단순하게 여긴다면 복병을 만나게 된다. 69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81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소기의 결실이 따른다. 93년생 기교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변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24, 85</p>
<p><b>辰</b> 40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된다. 52년생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이와 함께해야 하는 부담이 보인다. 64년생 기회, 팔목상대할 만하다. 76년생 망망대해에 물결이 잔잔하니 순탄하다. 88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제적인 성과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8, 36</p>	<p><b>戌</b> 34년생 예견된다면 회피하는 것이 옳다. 46년생 준비해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역활할 것이다. 58년생 마음에 담고만 있지 말고 내비춰야 의미가 있다. 70년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범하게 넘겨 버리면 그만이다. 82년생 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83, 59</p>
<p><b>巳</b> 41년생 체면 따지지 말고 선행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불합리하다면 빨리 개선하자. 65년생 먼 거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89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는 과정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55, 73</p>	<p><b>亥</b> 35년생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에 미혹되면 곤란하다. 47년생 활용한다면 절실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59년생 명분만으로는 공허하므로 실속도 찾아라. 71년생 억지로 행하려고 하지 말라. 83년생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79, 0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